

「학부모 청렴 연수」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금액 제한없음	일반인 (적용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5만원 이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10만원)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제공 불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인권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3. 학교폭력 징후

(1) 피해학생의 징후

- ①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 ②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 ③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 ④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 가해학생의 징후

- 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 ②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 ③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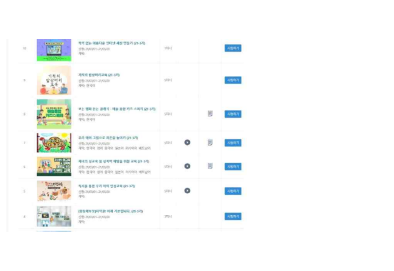
- 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 ②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 ③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②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③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④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 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⑥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⑦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6. 학부모님을 위한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안내

- ① 학부모ON누리 접속 <http://www.parents.go.kr/>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우측 상단의 [온라인교육과정]을 클릭, [학부모교육]을 클릭
- ③ 5번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10번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니다.

		
<p>온라인교육과정 클릭</p>	<p>부모자녀관계 - '5번.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수강</p>	<p>인성·생활지도 - '6번.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p>

☎ 학교폭력 긴급전화 번호 : 112 / 117

☎ 학교 전담 경찰관(김대진) : 010-4572-4892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

2.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적 손상,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애착형성의 붕괴,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적, 자기 파괴행동 등

3.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가.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 112)

「학부모를 위한 인권교육」

도덕성의 힘을 아시나요?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도덕성이 낮은 아이보다 자제력(참을성), 집중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모든 일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 주세요.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

☐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적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부모의 본보기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의 도덕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가며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위험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 잘못은 묵인하지 말고 지적하여 고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묵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면 점차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가.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라.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최고 수준(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왕성한 활동시기인 10대와 20대 사망원인의 2위, 1위가 자살(고의적 자해)로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귀한 자녀의 생명 중시 교육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살 요인

- 1)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우울증**이 큰 비중을 차지
- 2) **경제궁핍,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청소년을 자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3)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잔소리와 꾸중**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요인
- 4) **매스컴의 선정적 자살자 보도**가 청소년 자살을 유발

■ 자살 경고 표시

- * 식사 습관과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화한다.
- * 평소 참가하던 행사나 활동을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 *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
- *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 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 *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 *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도전적 발언을 할 때
- *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 변화 등

■ 대응방법

- 1)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걸 깨닫고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심한 반박을 해서는 안된다.
- 2) 반드시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도 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자살을 시도하는 10대는 부모나 가족,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행동에 대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저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심리상담자, 신경정신과 의사, 청소년 문제 전문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시도한 원인 규명을 하고 당사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 입원이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다.
- 5)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당사자의 비관적인 느낌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도록 도와준다.

■ 자살 예방을 위한 대화기법

1.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짧게 이야기한다.
3. 차분한 목소리로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한다.
5.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한다.
6. 짧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7. 다른 사람의 기분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분노, 고통을 이해해 준다.
9.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10. 절대적인 평가를 하려하지 말고 현재 진행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
11. 되도록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13.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다름을 넘어 어울림의 세계로

1.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다문화 가정이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 가정을 말합니다.

▷ **다문화가정** :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가정, 북한에서 온 새터민 가정을 의미함
 -한국 문화와 외국인 부모님의 문화가 모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가정'이라는 뜻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
	중도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외국인근로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 및 주재원, 유학생, 재외동포 등 외국국적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 다문화 교육이란?

다문화 교육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기초로 하여 다른 집단들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식, 태도, 가치교육인 동시에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이해 및 평등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육입니다.

3. 다문화학생 수

- 2019년 전국 다문화학생 수는 137,225명으로 2018년 122,212명 대비 12.3%가 증가함
- 일반 학령인구(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증가 추세임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다문화 학생 수(A)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전체 학생 수(B)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5,773,998	5,633,725	5,502,880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86%	1.07%	1.35%	1.68%	1.89%	2.17%	2.49%

4.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미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할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과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이 많아진 것처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이제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 아이와의 대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나요?

- ♥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오고, 결혼이나 공부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
- ♥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도 많단다.

☺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가족끼리 말이 통하나요?

- ♥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할거야. 서로의 말을 배우기 위해 가족들이 노력해야 하지.
- ♥ 하지만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목하게 살 수 있단다.
- ♥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곳도 많이 생겼어.

☺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요?

- ♥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지. 우리나라 음식 이름도, 모양도, 맛도 모르니까.
- ♥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천천히 배워 간단다. 그러니까 가족과 주변 이웃들이 도와줘야지.

☺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면 그 아이들은 외국 사람인가요?

- ♥ 아니란다.
- ♥ 피부색이나 얼굴 모습이 달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된단다.
- ♥ 한국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옷을 입으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단다.
- ♥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 다문화 가정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 ♥ 한 가정에 엄마, 아빠의 두 문화가 같이 섞여 있으니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단다.
- ♥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 ♥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미래 세계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단다.

6.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다문화교육은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평등한 관점에서 존중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간다면 모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10계명

1. 자녀의 하루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하루 동안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이야기라도 편안하게 말하도록 격려한다.
2. 가능한 자녀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허락을 받도록 지도한다.
3. 누군가 물건을 주거나 따라가자고 하는 등의 경험을 하면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또는 “엄마(보호자)에게 물어보구요” 라고 말하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준다.
4. 낯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길을 묻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식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도록 알려준다.
5. 위급 시 부모-자녀간 통하는 비밀암호를 미리 정하고 사용한다.
6. 위급상황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도록 하고,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부모의 전화번호로 전화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공중전화의 수신자부담 전화 방법 또한 숙지시킨다.
7. 등하교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자치센터, 경찰, 지구대, 은행 등)이나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준다.
8. 집에서 먼 장소에 가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만나는 장소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하며 자녀의 옷이나 외부로 드러 나는 물건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9. 등하교 시간을 지키도록 하여 학교에 너무 일찍 가거나 늦게까지 남아 있지 않도록 가르친다.
10. 자녀와 함께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여 자녀가 주로 다니는 통학길 등을 둘러보고 안전한 장소(길), 위험한 장소(길)를 점검해본다.

출처 : 이현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1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 자녀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수칙



- ❖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비밀번호 사용은 금지한다.
- ❖ 자녀와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열린 대화를 나눈다.
- ❖ 자녀가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대화를 통해 자녀의 패스워드를 공유한다.
- ❖ 자녀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다.
- ❖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컴퓨터 이외의 인터넷 사용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 자녀에게 휴대폰번호, 주소,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안 됨을 알려준다.
- ❖ 부모님이나 보호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패스워드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준다.

출처 : 미국 국립아동지원센터 프로그램(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NCAC)



아동 성폭력 관련 신고 ·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학교폭력(성폭력) 신고전화

☎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 **국번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여성지원



☎ **국번없이 112**(경찰청)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생활 속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구조 개선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개인방역, 사회방역, 정부방역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방역의 경우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과 4가지 보조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p>제1수칙</p>  <p>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일반 국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4일간 쉬기 ②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기 ③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기 ④ 병원이나 약국,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p>* 학교는 강화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p> <p>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방문 진료·검사 실시</p>
<p>제2수칙</p>  <p>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두기 ③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 ④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기 ⑤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기
<p>제3수칙</p>  <p>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하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 가리기 ⑤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div>제4수칙</div>  <div>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이때,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으며,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하기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기 ③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카트 등)을 매일 소독하기 ④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용량과 용법 등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기
<div>제5수칙</div>  <div>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 만들기 ②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하기 ③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기 ④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 삼가기

◆ ‘생활 속 거리두기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div>마스크 착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스크 착용보다 손씻기, 사람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 ②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 ③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하기
<div>환경소독 (가정)</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하기 ②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하기
<div>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 자제하기 ②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 일정 챙기기 ③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하기 ④ 가급적 외출 자제하기 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div>건강한 생활습관</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칙적인 운동하기 ② 정기적으로 건강관리 실천하기 ③ 균형 있는 영양 섭취하기 ④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하기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근절」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선행교육이란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하는데 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법을 계기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조)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법 제6조)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 -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

1. 교권 침해의 의미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로,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로 인하여 교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직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교권의 침해는 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권 침해의 종류

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 ① 수업권 침해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사에 대한 폭력, 성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③ 교사의 지시 무력화되는 경우
 - 힘이 센 학생들이 사주하여 교사의 지시 거부
 - 인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 ①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 ②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 시험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3. 교권침해 그 이후

자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 학교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생활 저해· 담임 교체 등 2차 문제 발생
교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학생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생·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4. 교권 침해 시 복잡한 어려움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경찰 조치 및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 출석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민사손해배상(학부모)

5. 학부모에 의한 지혜로운 고충 처리 방법

내 자녀가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재하,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및 보호조치 후 관련증빙자료 확보 담당 ·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확인(학교담당자) ·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법률지원팀 및 담당부서(안전공제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률의 이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관련자 조치, 분쟁조정) ·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생활교육 담당 상담사(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요청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는 경우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 주변 친구들에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 · 담당부장 및 교감과 상담 ·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 체벌 동기 및 정확을 정확히 확인 · 교감(교장)과 상담한 후에 조치 요구 · 학생 인권옹호관 또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6. 마치며

**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한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줌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